

며, 집정관 임기도 끝나지 않은 기원전 55년 가을에 브린디시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카이사르가 크라수스에게 진 빛은 다 갚지 못하고 아직도 꽤 많이 남아 있었던 모양이지만, 더 이상 빌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크라수스는 로마 최고의 장군이라는 명성에 빛나는 폼페이우스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에 버금가는 카이사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삼두'의 일원으로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빛나는 전과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에 초조해 있었다. 60세의 크라수스에게 오리엔트 원정은 생애 최후의 기회였고, 이 마지막 기회에 그는 사유재산까지 털어서 도전하고 있었다. 이런 크라수스에게 의지할 수 없다면, 카이사르가 뭉치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은 막혀버린 셈이다. 지금까지는 크라수스가 빌려주거나, 아니면 크라수스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른 사람들이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카이사르는, 술라나 루쿨루스가 그랬듯이, 자기가 정복한 땅에서 재물을 강탈했을까. 술라는 나중에 변상했지만, 루쿨루스는 변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카이사르가 지배하고 있는 갈리아는 술라나 루쿨루스가 정복한 그리스나 오리엔트가 아니다. 갈리아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델포이나 에피다우로스처럼 지중해 세계 각지에서 신자가 몰려든 덕택에 늘 재물이 풍부한 성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족의 유력자쯤 되면 황금 제품을 갖고 있었겠지만, 주민 대다수는 오리엔트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되는 경제력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갈리아 정복이 끝난 뒤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역에 부과한 세금은 1년에 4천만 세스테르티우스였다. 포로 로마노 확장 공사의 부지 매입비가 6천만 세스테르티우스니까 그 3분의 2에 불과하다. 이것은 당시 갈리아가 얼마나 가난한 땅이었는가를 증명하고 있다. 이런 지방에서 아무리 착취해보았자 뻔한 일이다. 또한 패배자가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 지방을 로마 국가에 편입할 생각